

外國女性들의衣生活



【글 쓴 이】

Costume of Foreign Ladies

최 경 자

Kyung Ja Choi

나는 6월에 美國家政學會 초청으로 코로라도 덴바에서 열리는 제 51회 大會에 참가하기 위하여 한국을 떠났다. 나는 평소 外國女性들의 衣生活를 보고 싶어하던 중 이번 이 기회는 딱이나 다행한 일이었다. 이제 내가 간 곳마다 보고, 느낀 것 중 몇가지 만을 적어 불려고 한다.

한국을 떠나 제일 먼저 내린 곳이 東京이었다. 東京이라면 여러분들 중에 日本에 가 보신 분들은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지만 제일 먼저 달각 달각하는 「게다」 소리였다. 허지만 日本 羽田비행장에 내렸을 때는 「게다」를 신은 부인은 별로 없고, 거의 다 양장에다 구두를 신었으며, 혹 日本옷을 입었으며 예전에 입던 길게 느러진 「다모도가」 아니라 많이 개량된 것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었다. 또한 눈에 띄인 것은

통학하는 男女 國民學校 學生들의 의복이었는데 그들이 입은 의복은 비록 목면이었으나 깨끗이 세탁해서 잘 손질 한 것이었으며 바지는 무릎이 들어날 정도로 짧게 입었으므로 대단히 경쾌해 보이고, 그들 역시 명랑해 보였다. 그리고 무릎이나 목에 때가 있어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어린이는 발견할래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깨끗하고 귀여운 인상을 주었다. 여기에서 나는 그 어린이들의 배후에 숨은 어머니의 근면성과 수준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質的으로 좋은 감을 선택하기 보다는 깨끗하고 튼튼한 옷감을 선택하여 발육기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옷을 마련 해 주는 것이 상식화 되고 있다. 너무 지나친 고급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고 그 옷 때문에 마음대로 놀지

도 못하는, 옷의 노예가 되기 보다는 튼튼하고 값싼 옷을 꾸여올게 입힐 줄 아는 어머니라야 現世代가 要求하는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敗戰國家로써 오늘의 日本을 건설한 그들의 일치단결의 노력과 고뇌를 상상해 보았다. 日本을 떠나 꿈에도 그리던 하와이를 거쳐서 大會장소인 「덴바」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美國家庭學會 會員들이 주밀하고 계획성이 있는 가장 발전적인 方法의 전시가 一週日이라는 단 시일에 가장 광범위한 分野에 걸친 知識을 얻게 했다. 즉 우리생활 주변에 가장 새롭고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物品이 수천가지 종류나 소개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주부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가장 적은 시간을 부업에서 소비하도록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도록 보고 들게 마련되어 있었으며, 한 알의 계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면 영양소를 조금도 상실치 않고 완전히 섭취 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 方法이 소개되고 있었다. 또한 깨끗하고 편리한 주방을 가진 이유는, 食母를 사용치 않는 그들의 실정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가를 그들 자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구케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가정의 주방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주부가 주방에 잘 내려가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주부는 부업을 自身들이 每日每日 일하는 중요한 일터로 생각한다면 좀 더 깨끗이 좀 더 便利하게 일 할

수 있는 設計와 器具를 갖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사회제도가 食母없이 주부 혼자서 일을 담당하기가 어렵고 일이 심하면 둘, 셋도 食母를 두는 집도 있다. 어서어서 우리도 우선 전기와 수도 사정만이라도 完化되어 주부 자신이 부업의 主人이 된다면 좀 더 이상적인 가정을 꾸밀 수 있는 동시에 食母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는 자연적으로 解消될 것이다. 하루 바삐 우리가정에 주부들의 희망인 편리한 기계적 시설이 完成된다면 현하 子女教育에도 좋은 결과를 올 것이다. 그 例로써 식모를 많이 채용하는 집, 따님들의 가정교육이 바로 잡힐 것이다. 어머니가, 안해가 분주하게 부업에서 食母없이 일하는 것을 목격한 어느 남편이나 子女가 床을 차려 오기만을 기대하거나 自己가 능히 할 수 있는 잔 심부름까지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로 美國家庭, 또는 美國에서 사는 韓國人들은 다 그 주부를 도와주는 데에 게을리 하지 않고 自己가 식사하고난 식기까지도 自身들이 부업에 들고 나가는 것을 例로 알고 있으며, 손님이라도 주부의 수고를 덜도록 하는 것이 상식화 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단란한 가정의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點을 느꼈다. 어디를 가나, 한 가족이면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할 것 없이 서로 서로 부업일이나 집안일을 적극 돕고 있는 것이다. 이상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세탁기는 어떤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새로운 것이며 재봉틀은 어떤 종류가 새로 생긴 것 등인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적절한 물건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各自가 돌아가서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또 한가지 느낀 것은 「텐바」라고 하면 락키산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 락키산에도 自然美에 못지 않게 人工의 美를 加하기를 잊지 않았다. 근면한 그들은 꽃을 심고 거두고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변을 만들고, 촌에서도 집집마다 車를 두고 알뜰한 살림을 하는 것을 보았다. 自然의 美와 신비 만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금강산에도 人工의 美를 가하면 더 한층 世界에서 유명한 경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大會가 끝난 후 나는 역시 농촌에 관심을 가진코로 기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향하였다. 기차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경은 상상도 못할만큼 웅장한 대지가 한 없이 연달아 있었으며 따거운 햇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으나 비는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초가 풍성히 자라는 것을 보았다. 즉 비 대신 물을 스프링클이라는 고무호수로 뿌려서 아름다운 잔디를 四方에 기르는 모양이다. 따라서 그들은 집집마다 화초를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으며 심지어 육, 칠십 노인들도 부엌일을 하고 뜰을 거두고 명쾌한 기분을 잃지 않고 일도 하고, 놀기도 하는 것이 내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는 옛날부터 점잖다는데 관심이 크다. 결국 점잖다는 말은 늙었다는 말인데 늙은 것이 큰 자랑도 아니고, 명량을 잃은 심정은 퇴보라고 생각한

다. 비록 육체는 늙어 가도, 마음마는 젊었을 때의 희망과 명량과 진취성을 잃지 않고 살고 싶다. 漢語에 「白首閑山에 心不老」라는 말은 어디에 치중된 말인지 모르나 명량과 웃음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죽 늙은 標라고 생각 해 온 것은 나 혼자 뿐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들 平素의 衣生活을 몇가지 적어 보기로 하겠다. 외국부인의 衣生活은 항상 책에서 보고 또 외국을 다녀 오면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여 그들은 매우 겸소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마디로 겸소하다고 하기 보다는 그들과 우리는 衣生活에 있어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형편이나 환경도 다른 것을 알았다. 대체로 그들은 장소와 用途를 알아서 적절한 옷을 입을 줄 알고 또 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 할때는 얼마든지 간편한 옷을 입는다. 또 놀러 갈 때나, 파티에 갈 때는 각각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는다. 주부는 自身이 부엌일을 하는 관계상 노동복을 절대 필요로 한다. 옷 제도와 그들의 발전적인 생활 方法이 그들 衣生活의 발전을 촉진 시키며 필요 이상의 사치나 허영은 용납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한복은 오늘날까지 그 모양이나 갑에 있어서 어느 때나 변화 없이 시장에 갈 때나 좋은 초대장소에나 한 모양이다. 또 양장에 있어서도 우리는 생활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기보다는 외출복으로 입는 분이 대다수이니 그런고로 그들 보다는 썩나 신경을 쓰고 가장 특수한 옷을 입으려

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들의 특수층을 제외한 一般의 의생활의 검소함과 가정생활 수준이 높은데 비하여 나는 우리 한국 의생활과 가정생활 제도가 균형을 잃고 일종의 질름발이 같은 발전을 한다고 느끼었다. 이와같이 의생활에 있어서 外國女性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환경이나 처지나 또 생각 하는 方法에 있어서 다르다. 그들의 의생활에 있어서의 사고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의 차이점을 자세히 적는다며는 그들에 있어서 양장이란 자기네들 옷이며 또 오랫동안 입고 생활해 내려온 옷이다. 이와 달리 우리는 양장이라고 하며는 긴장한다고 할까? 심각히 생각하며 大部分 특별한 경우나 혹은 外出服으로 사용되고 우리생활을 간소화 하기 위해 개량하기 위한 것 뿐마는 아니다. 그런 고로 그들의 의생활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인데 근거를 두고 입을 때와 형편에 적절한 옷, 즉 일 할 때는 간편하고 능률적인 옷이 마련되고 外出時, 市場에 갈 때, 초대를 받을 때, 큰 파티, 간단한 외출등등 옷 자체가 적절히 선택된다. 그 질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무리가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반대로 옷의 종류에 혹은 형편에 따라 감을 매우 달리 한다든가 모양을 달리 한다든가 하는 일은 적다. 이것이 우리 의생활 발전에 큰 암이라고 하겠다. 또 나는 그 이유의 하나를 부엌과 결부시켜 보았는데 우리는 언제나 外出服뿐이지 활동하기 쉬운 옷은 마련할 필요조차 없기때문에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主婦自身

이 부엌 일을 한다며는 좀 더 일찌기 우리의 의생활이 발전되었을 것을……하고 생각 해 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운 후부터는 작업복으로는 튼튼한 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누가 보아도 능률적이며 바쁜 時代에 알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환경을 돌이켜 볼 때에 외출복이나 노동복이나 같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장에 가는 데도 金銀寶가 뻥적이는 레에스 혹은 양단 등을 대낮에 입는 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편 먼지가 많은 거리에 새하얀 버선을 신고 긴 치마를 땅에 닿도록 질질 끌며 다니는 모습은 매일 같이 목격하는데 그 배후에서 그만큼 깨끗하게 손질 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몇몇의 食母가 달려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생활을 하루 속히 간소화 합리화 시켜서 주부가 부엌에 자주 나가서 우리의 생활수준을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의생활이 외적으로만 발전하고 내적으로 낮다는 것의 이유한 가지를 또 알았다. 자못 우리는 남의 간섭이 많고, 또 남의 눈과 말을 몹시 두려워 하는 까닭이라고 본다. 예로써 外國사람들의 의생활은 어디까지나 자기 본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의 본위로 옷을 입는 일이 많다. 그들은 남이 무어라고 할까? 하는 걱정 없이 추우면 여름에라도 두텁게 입고 더우면 겨울에라도 얇게 입는다. 일하기 쉬운대로 짧은 바지도 입고 자기에게 편하도록 입는다. 내가 불란서

에서 8월 중순에 돌아 다니는데 날씨가 매우 쌀쌀하였다. 거리에는 얇은 半팔옷을 입은 사람도, 오바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상스럽게 생각하거나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는 추위도 억지로 남들이 입는대로 입고 더위도 억지로 따라 입게 된다. 집안 살림은 엉망이고 말이 아닌데 옷만은 남에게 빠지지 않는 옷을 입을려고하는 일도 많다. 거리에서 흔히 보는 백만장자의 부인의 옷차림이나 가난한 사람의 옷차림이나 별로 분간하기 곤란한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용감하여지고 남의 간섭을 과히 하지 않는 것이 外形에 치우치지 않는 內外 맞는 기형 아닌 우리 신생활이 시작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도 생각하였다. 현재 우리 의생활이 얼마나 '모순'이 있는가를 우리 주부들은 깨닫고 용감하여져야 하겠으며 새롭고 좋은 일을 하기에는 얼마나 큰 용기와 용단이 필요한가는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셨을 것이다. 前日에 학생들이 신생활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문제는 학생보다도 솔선해서 주부들이 할 일이라고 본다. 그 전에 부르짖던 신생활 운동이나 짧은 치마 혹은 거리에서 가위를 들고 긴 고름을 짜르던 것을 해방후 一部에서 긴 치마의 비활동적인 옷차림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을 벗어난 모양으로 생각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이제 그들의 의생활에서 본 것은 물질을 허비하는듯 하면서도 아끼는 것, 옷이 좀 해져도 정성스레 기워서 입는 다

든가 약간의 악세사리를 利用하여 늘 옷의 격을 바꾸어 입고 기분을 바꾸는 것은 꼭 우리 생활을 새롭게 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부엌설비도 잘 되었지만 것처럼 부지런하여 집안을 구석 구석 잘 치워가며 또 시간을 내어서 옷 만지는 것도 제올라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패턴(pattern)이 대단히 발달되어서 때로는 옷감을 사다가 손수 만드는 것을 흔히 본다. 근일에 한복들은 기성복이 많이 나와서 일반 가정 주부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일반 가정 재봉이 점점 멀어져서 우리가 항상 입는 저고리까지도 바느질 집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주부들은 바느질 하지 않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이용 하시는지 매우 궁금하다. 주부들의 말은 바 임무는 남편에 못지 않게 크고도 중요하다. 훌륭한 가정이 없는 국가는 발전을 꿈꾸기 어려운 일이다. 가정주부가 일본 일초를 아끼며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며 훌륭한 안해가 되고 냉철한 어머니가 되는데서 훌륭한 정치가도 날 것이며 바람직한 제이세 국민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의생활은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고상하고 검소하다고 소개했는데 그 특수층의 의생활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일면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필라델피아」에서 한 페자이너를 만났다. 주문복을 여러가지 보여 주는 중 945弗짜리 드레스가 있는에는 저유히 놀랐다. 즉 옷을 주문하여 마련할 만한 본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풍부한 본인 것이다. 일반은 기성복으로 완전히 만족한 의생활을 하고

있다. 또 기성복은 세계적으로 미국이 잘 발달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다. 日本에서도 기성복 혹은 이지 오다가 매우 발달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기성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또는 서투른 주문복 보다는 얼마나 우리 의생활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기성복 보급이 어려운 여러가지 악조건이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 한다. 그 악조건 중 제일 큰 것이 무대가 좁다고 할까? 즉 요구량이 적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조절하여 一般사람이 기성복을 착용한다면 의생활에 일대 복음일 것이다. 나는 늘 주문복을 취급하면서 느끼는 苦悶이 기성복 발전에 의하여 解決할 것을 믿는

다. 오래 전부터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우리에게도 일반·부녀들의 기성복이 애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불란서에서 크리찬 뉘올 카-탄 지반시등등 유명한 테자이너들의 170, 80 點式 作品發表를 보았는데 파리市中에서는 핏손나불한 옷을 입은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파리와 外國에 갔다온 분들은 다 이구동성이다. 이것이 이상 말한 바 外國女性의 의생활을 말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우리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때와 장소와 환경에 맞는 적절한 옷을 선택하여 의생활에서의 낭비를 절약하여 住宅과 食生活에 좀 더 向上을 보았으면……하고 재삼 우리 부인들의 신생활 운동이 적극 요망된다.

現代 女性 生活 全書

- | | | |
|------|------|------|
| ① 健康 | ② 美容 | ③ 趣味 |
| ④ 料理 | ⑤ 育兒 | ⑥ 服裝 |
| ⑦ 禮節 | ⑧ 書翰 | ⑨ 家政 |
| ⑩ 住宅 | ⑪ 編物 | ⑫ 手藝 |
| ⑬ 榮養 | ⑭ 婦道 | |